

2025
중3-1
비상

2025 중3-1 국어 비상 | 1(2) 맥락을 담은 글 쓰기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글을 쓰는 순서를 묻는 문제, 제시된 지문에 적용된 글쓰기 과정에 대한 문제, 글쓰기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글쓰기 과정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조에 맞게 개요를 짠다.
- ② ‘내용 생성하기 → 계획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 ④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적절한 단어나 표현이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단 글을 쓰고, 다 쓴 후에 어색한 부분을 점검하여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좋다.

【2~3】 다음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 위 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는 ‘제주도를 여행한 후기’이다.
- ② 이 학생은 글을 쓰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이 학생이 예상하는 독자는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한 친구이다.
- ④ 이 학생은 글에 담을 내용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 ⑤ 이 학생은 글을 쓸 때 필요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다.

3. 위 만화의 학생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어떤 매체에 실을지 결정한다.
-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 문단 배열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 ③ 내용을 조직할 때는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쉽게 쓸 수 있다.
- ④ 초고를 쓸 때에는 고쳐 쓰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써야 한다.
- ⑤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생각 그물'의 방법을 쓸 수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지 지 오십 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육이오 전쟁 때 **㉠**난리를 피하여 **㉡** 옮겨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에 북한 말투를 **㉢** 구사하던, 다렌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나)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 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일 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

은 끝이 난다.

(다)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아무리 일가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 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 왔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마)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보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이 글의 (나), (라), (마)에 두드러진 문학작품 해석 방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나)	(라)	(마)
①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작품과 작가의 관계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
②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작품과 작가의 관계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③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④	작품과 작가의 관계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⑤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5. 이 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 ① 이 소설은 작가 '공선옥'의 다른 작품들과 주제 의식이 비슷하구나.
- ② 글쓴이는 '아저씨'가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끼게 되었구나.
- ③ 글쓴이는 이 소설을 읽고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소중함을 깨달았구나.
- ④ 글쓴이는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감정에 변화가 있었구나.
- ⑤ 글쓴이는 아빠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가」의 등장인물인 '아저씨'가 떠올랐구나.

6. 이 글을 고쳐 쓸 때 ㉠, ㉡를 고쳐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 부분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한 단어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② ㉠: '피란'이란 한 단어로 고치는 것이 낫겠어.
- ③ ㉡: 예상 독자가 중학생이니 '구사하던'이란 단어 대신 더 쉬운 표현을 찾아봐야겠어.
- ④ ㉡: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용하던'으로 바꿔야겠어.
- ⑤ ㉠, ㉡를 고쳐 쓸 때는 문맥에 맞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군.

신유형

서평 쓰기에 대한 문제,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고치는 문제, 문학 작품 감상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서평 쓰기에 대한 학습,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예상 독자에 맞게 수정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다음은 글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 생성하기 → 계획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 ③ 글쓴이는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지 고민하는 등의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④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는 정확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인지 판단해야 한다.
- ⑤ 내용을 생성할 때는 '자유 연상하기'나 '생각 그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오십 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육이오 전쟁 때 ㉠도망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에 북한 말투를 ㉡구사하던, 다렌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 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일 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나)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아무리 일가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 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다)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 왔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

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라)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 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보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마)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 다음은 글쓴이가 글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 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 ① 이 소설을 읽고 깨달은 점
- ② 이 소설을 읽은 느낌
- ③ 이 소설을 읽은 까닭
- ④ 이 소설에 대한 나의 평가
- ⑤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

9. 글쓴이가 이 글을 쓸 때 활용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남북한 이산가족 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
- ②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을 서술한 비평집
- ③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담은 텔레비전 뉴스
- ④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
- ⑤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국어사전

10. 글쓰기가 학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글쓰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할 때, 글쓰기가 설정한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내문>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읽은 소중한 책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선된 서평은 학교 신문에 실릴 예정이며,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대상: ○○ 중학교 학생 누구나
 *기간: ○○월 ○○일~○○월 ○○일
 *방법: 추천하고 싶은 책에 대한 서평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작성하여 ○○ 중학교 신문부에 메일로 제출함.

- ○○ 중학교 신문부

- ①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쓰기 위해
- ② 감명 깊게 읽은 책 「일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 ③ 학교 신문부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 ④ 사회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 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11. 글쓰기는 이 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을 고쳐 썼다. 다음 중 잘못 고친 것은?

- ① ㉠ 도망 → 피란
- ② ㉡ 구사하던 → 사용하던
- ③ ㉢ 안쓰러웠다 → 안스러웠다
- ④ ㉣ 해아릴 → 헤아릴
- ⑤ ㉤ 찾아보면서 → 찾아되면서

12. (다)의 글을 쓰기 위해 글쓰기가 활용하면 좋은 자료로 적절한 것은?

- ①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국어사전
- ② 글쓰기의 「일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 ③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다룬 신문 기사
- ④ 남북 이산가족 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
- ⑤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세계와 성향을 서술한 비평집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오십 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육이오 전쟁 때 ㉠피란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특이한 성격에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다렌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나)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 간다.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일 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다)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아무리 일가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 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

다. 주인공이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라)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 왔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마)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댁에 가기로 했다.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 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보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바)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3. 글쓴이가 「일가」를 읽고 얻은 깨달음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 ②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가족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 ④ 독서를 한 후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 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14. 윗글을 쓰기 위한 개요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처음	(가) 서평을 쓰게 된 계기 ①
중간	(나) 줄거리 ② (다) ‘아저씨’에 대한 글쓴이의 변함없는 생각 ③ (라) 작가의 작품 성향과 이 소설의 해석 ④
끝	(마) 소설을 읽고 얻은 깨달음 ⑤ (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15. 수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쓸 때 ‘계획하기 → 초고 쓰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 ②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그중 글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한다.
- ③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자유 연상하기, 생각그물 등의 방법으로 글에 들어갈 내용을 떠올려 본다.
- ④ 초고 쓰기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배치할지 정하는 것으로, 쓰고자 하는 글의 설계도를 짜 본다.
-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 쓴 글을 여러 번 읽어 보며 문맥에 어색한 단어를 고친다. ㉠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 ‘도망’으로 고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다.

2. 정답 ③

이 학생이 예상하는 독자는 블로그에 방문하는 친구들이다.

① 이 학생이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는 ‘제주도 여행 후기’이다.

②, ④, ⑤ 이 학생은 막상 글을 쓰려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할지, 또 어떤 사진을 첨부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즉, 글에 담을 내용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정보를 알려 주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사용한 표현과 문장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3. 정답 ③

내용을 조직할 때는 글의 설계도인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쉽게 쓸 수 있다.

①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초고를 여러 번 읽어 보며 글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②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을 설정해야 한다.

④ 초고 쓰기 단계는 글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글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단어나 표현이 당장 떠오르지 않고, 문단의 배열이 이상하더라도 일단 글을 쓰는 것이 좋다.

⑤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것은 ‘자유 연상하기’ 방법이다.

4. 정답 ①

(나)는 작품의 줄거리, 즉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라)는 작가의 성향, 즉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마)는 작품을 읽고 난 후 얻은 깨달음, 즉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②, ③, ④, ⑤ (나), (라), (마)에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5. 정답 ②

글쓰이는 ‘아저씨’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의 가족뿐이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채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끼게 되었다.

① 이 소설의 작가 ‘공선옥’은 이 소설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 왔다.

③ 글쓰이는 이 소설을 읽고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④ 글쓰이가 「일가」를 처음 읽었을 때는 ‘아저씨’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일 년이 지난 후 다시 읽었을 때는 ‘아저씨’가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⑤ 글쓰이는 아빠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아빠 쪽 친척 중에 육이오 전쟁 때 피란 오신 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가」의 등장인물인 ‘아저씨’를 떠올렸다.

6. 정답 ④

‘구사하다’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러 쓰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의미가 비슷한 ‘사용하던’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①, ②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뜻하는 ‘피란’이란 한 단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③ 예상 독자가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구사하던’이란 단어 대신 더 쉬운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⑤ ㉠, ㉡를 고쳐 쓸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썼는지, 글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문장과 낱말이 문맥에 맞고 바르고 정확한지 등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정답] ①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③ 글쓰이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화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 고민하는 등의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④ 자료를 찾을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인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 판단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자유 연상하기’나, 중심 주제를 적고, 그 주제로부터 연상되는 것을 생각이 흐르는 대로 지도처럼 기록하는 ‘생각 그물’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 [정답] ③

윗글에서는 이 소설을 읽은 까닭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라)에서 이 소설을 읽고 깨달은 점이 드러난다.

② (나)에서 이 소설을 읽은 느낌이 드러난다.

④ (마)에서 이 소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드러난다.

⑤ (다)에서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이 드러난다.

9. [정답] ①, ⑤

남북한 이산가족 발생 문제의 원인과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담은 텔레비전 방송을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④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정답] ②

<안내문>의 ‘여러분이 읽은 소중한 책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를 통해 이 글의 목적이 감명 깊

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는 이 글의 주제이다.

③ <안내문>에서 학교 신문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안내문>에서 사회 현상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안내문>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정답] ③

‘안스러웠다’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안스러웠다’가 적절하다.

① ‘도망’은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을 의미한다.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의미하는 ‘피란’으로 고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② ‘구사하던’도 맞는 표현이지만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헤아릴’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헤아릴’이 적절하다.

⑤ ‘친척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찾아뵈면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2. [정답] ⑤

(다)에는 「일가」를 쓴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이 나타난다. 이를 쓰기 위해서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세계와 성향을 서술한 비평집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① ‘일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쓰이의 ‘일가’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최근 명절 풍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남북 이산가족 발생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①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③, ④, ⑤는 「일가」를 읽고 얻은 깨달음이 아
니다.

14. 정답 ③

글쓴이는 「일가」를 다시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
한 생각이 바뀌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일상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일
가」에 대한 서평을 쓰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는 「일가」의 즐거리를 사건의 흐름대
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작가 ‘공선옥’의 작품 성향과 이 소설
의 주제 의식을 밝히고 있다.

⑤ (마)에서는 글쓴이가 「일가」를 읽고 난 후 일
가친척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겠
다는 깨달음을 얻었음이 드러나 있다.

15. 정답 ②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그중에서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① 글을 쓸 때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치
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
여 구조에 맞게 개요를 짠다. 자유 연상하기, 생각
그물 등의 방법으로 글에 들어갈 내용을 떠올려 보
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어떤 순서로 내용을 배치할지 정하고 쓰고자 하
는 글의 설계도를 짜 보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
에서 이루어진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 쓴 글을 여러 번 읽어 보며
문맥에 어색한 단어를 고친다. 그러나 ㉠은 적합한
표현이다.